

# 2015 1차 전국운영위원회

○ 일시 : 2015년 3월 8일(일) 오후 2시

○ 장소 : 신촌역 근처 카페

○ 참석 : 박기홍(위원장), 정의웅(대의원), 안현진(대의원), 박규상(대의원)

○ 불참 : 최창진(대구 청학위원장)



## 2015년 4기 1차 전국운영위원회

### ▶ 보고 안건

1. 활동보고
2. 4기 청년학생위원회 선거 결과 보고
3. 부문위원회 합동회의 결과 보고

### ▶ 논의 안건

1. 집행위원회 인준의 건
2. 연간 사업계획의 검토의 건
3. 토크콘서트 <사람들> 공동 주최의 건

### ▶ 기타 안건

### ▶ 공지사항

1. 차기 회의

## 보고안건1

## 활동 보고

### 주문 사항

청년학생위원회 활동을 공유해 주십시오.

#### 위원장

- 2월 23일 집행위원회 초동모임
- 2월 24일 부문위원회 합동회의
- 3월 6일 사무총장/조직실장/기획부장과 사업계획 논의
- 3월 6일 <시리자 임팩트> 참가
- 3월 6일 전) 노동당 부대표 정진우 동지 병부상 조문
- 3월 7일 1차 집행위원회

#### 대구 청학위

- 보고사안 없음

#### 부산 청학위

- 청학위원장 선거 진행 중
- 일정

(1) 2월 23일 선거공고

(2) 2월 27일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2월 28일 ~ 3월 2일 선거인명부 열람(3일)

(4) 3월 3일 선거인명부 확정

(5) 3월 4일 ~ 10일 후보자등록(7일) 및 등록 공고

(6) 3월 11일 ~ 29일 선거운동(19일)

(7) 3월 30일 ~ 4월 3일 투표기간(5일) (과반수 미달시 1일 연장)

(8) 4월 3일 당선자 공고

#### 정의용 대의원

- 2월 23일 집행위원회 초동모임 참관
- 3월 7일 1차 집행위원회 참관

#### 박규상 대의원

- 부산청학위 선거 이후 부산 청학위 활성화를 목표로 활동할 예정.

#### 안현진 대의원

- 2월 23일 집행위원회 초동모임 참관
- 여성국장과 함께 반성폭력 교육 준비를 목표로 하는 여성주의 모임 제안 예정

## 보고안건2 4기 청년학생위원회 선거 결과 보고

### 주문 사항

4기 청년학생위원회 선거 결과를 공유해주시요.

- 1) 기간 : 2014년 2월 15일 ~ 2월 19일
- 2) 방법 : 인터넷 투표 / 우편 투표
- 3) 투표 : 투표자 수 136명 (투표율 69.7%)  
서울지역 대의원 투표자 수 93 (투표율 : 78.2%)  
서울이외지역 대의원 투표자 수 44 (투표율 : 57.9%)
- 4) 결과 : 위원장/전국위원 박기홍, 서울 대의원 정의용, 서울이외 지역 대의원 박규상, 여성명부 대의원 안현진

## 보고안건3 부문위원회 합동회의 결과 보고

### 주문 사항

부문위원회 합동회의 결과를 공유해 주십시오.

### - 청학위 보고

#### ○ 의결기구 선출 결과

- 1) 기간 : 2014년 2월 15일 ~ 2월 19일
- 2) 방법 : 인터넷 투표 / 우편 투표
- 3) 투표 : 투표자 수 136명 (투표율 69.7%)  
서울지역 대의원 투표자 수 93 (투표율 : 78.2%)  
서울이외지역 대의원 투표자 수 44 (투표율 : 57.9%)
- 4) 결과 : 위원장/전국위원 박기홍, 서울 대의원 정의용,  
서울이외 지역 대의원 박 규상, 여성명부 대의원 안현진

#### ○ 집행위원회 초동모임

- 2015년 2월 23일(월) 오후 3시 30분 영등포 중앙당상
- 집행위원회 구성 및 전국운영위원회 계획 공유
- 상반기 사업 계획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

#### ○ 3월12일 <시리자와 포테모스, 남유럽에서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 - 문서로 제출

#### ○ 3월 21일 청년학생위원회 전국운영위원회(일시 변경 검토) - 상반기 사업계획 통과 등

#### ○ 청년학생위원회 예산 요청

- 1) 깃발제작 50,000원
- 2) <시리자와 포테모스, 남유럽에서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3월 12일) 사업비 일부  
<총예산> 현수막 + 광고 + 공간대여 + 포스터 + 연사료  
= 230,000~390,000원(예상)  
<지원요청> 100,000원(3월)

### - 무지개 기금 보고

: 현황 7,550,000원 / 청학위 약정 9인 / 54,000원 - 무지개기금 추가 조직 요청 있었음.

: 기존 중앙당 부문사업비(월 40만원)를 나누어 사용하고 있었고, 부문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무지개기금제를 시행하여 기금을 매달 적립하고 있었음.

: 중앙당 사업비가 없다는 연락이 있었고, 무지개기금 사용하자는 조직실 의견을 받음. 규정상 기금운영위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지출이 가능한 상황이고, 이에 대해 차기 부문위원회의에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

- 기타

- : 차기 전국위원회(03/21) 부문위원장 인준 관련 문서 제출
- : 차기 전국위원회(03/21) 부문위원회별 2015년 사업계획 제출( 3월 9일(월)까지 2015년 각 부문위원회 사업계획을 조직실에 제출.)
- : 부문위원회 주간업무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월간업무보고를 이행함.
- : 차기회의 : 2015년 3월 26일(목) 오후 7시, 중앙당 회의실

## 논의안건1

## 집행위원회 인준의 건

주문 사항

집행위원회를 인준해주십시오.

- 집행위원

- 김보영 : 집행위원
- 김유현 : 집행위원
- 김재섭 : 집행위원
- 문경원 : 집행위원
- 신소진 : 집행위원
- 오경택 : 집행위원
- 우 람 : 집행위원
- 홍종민 : 집행위원
- 신지혜 : 집행위원(여성국장)

- 집행위원장은 추후 임명할 예정임.

논의 결과

반대 없이 인준 통과함.

주문 사항

다음의 사항을 검토해 주십시오.

노동당 청년학생위원회 2015년 사업계획(안)

청년학생위원장 박기홍

1. 2015년 사업계획 개요

□ 작년 4월에 당이 채택한 ‘장기성장전략’은 요약하자면 ‘청년노동당’이라 표현할 수 있다. 2016년 총선에서 정치적 대안으로 노동당이 자리매김하는 것과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의 좌파정치의 판도를 바꾸는 것을 중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올해를 상정한다.

□ 2015년 사업의 핵심은 사회 곳곳에서 대중운동의 성과를 내고 있는, 청년 당원들의 활력을 청년학생위원회를 통해 조직하여, 당 전반에 활력을 불어일으키는 것이다. 내적으로는 각 급의 청년당원모임을 조직하고, 외적으로는 정책적, 정치적 대안으로서 노동당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의 활력을 위해서 적극적인 당원 확대 운동이 필요하다.

□ 청년 당원의 결집을 위해서는 청년학생위원회 차원의 기획과 노력이 필요하다. 비당원-당원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기획으로, 정세적이면서도 풍부한 내용이 있는 월례 기획 강연, 당을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청년 당원 행사가 가능하다. 각 지역에 있는 청년 당원의 모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도당과의 연계 강화, 청년학생위원회 중앙과 각 지역 활동가와의 연계 강화가 필수적이며, 청년학생위원회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청년 세대의 정책적, 정치적 대안으로서 노동당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당을 알리는 사업과 동시에 청년 세대를 겨냥한 정책 브랜드화를 추진해야 한다. 여름 집중사업인 총회, 청년정치학교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 준비하며 청년학생위원회의 집중 정책을 논의하고 선정해야 한다. 하반기에는 집중 정치 캠페인/사업을 기획하여 2016년 총선까지 흐름을 조직해야 한다.

2. 상반기 사업

1) 상반기 사업 개요

□ 상반기 사업의 핵심은 청년 당원 확대와 서울 청학위 건설을 목표로 한 월례강연과 각 급의 청년 당원 모임 조직이다. 지금도 청년들의 입당은 줄을 잇고 있으며, 청년 당원들의 입당은 당 활동에 활력을 주기에 가장 효과적이다. 서울 청학위 건설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청년 당원 확대의 성과를 기반해 이루어질 것이고, 서울 청학위 건설은 다른 지역 청학위 건설에 큰 자극과 동력이 될 것이다. 청학위가 전국적 기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서울 청학위 건설은 중요한 과제이다.

2) 각 급의 청년 당원 모임 조직

- 서울 청학위 건설을 중심으로

□ 목표

: 청년 당원들의 당 활동으로의 접근성 강화와 청년 당원의 결집을 위하여 각 급의 청년 당원 모임을 조직한다.

: 상반기 내 서울 지역부터 20대 당원 모임, 청년 당원 모임, 30대 당원 모임, 여성주의 모임 등 필요에 따른 다양한 형식의 청년 당원 모임을 조직한다. 이를 기반으로 8월 서울 청학위 건설을 완료한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청년 당원이 많은 지역부터 지역 청학위 건설 및 청년 당원 모임을 조직한다.

의견 제출

- 안현진 : 여성국장과 함께 여성주의 모임 추진 예정임. 여성주의 모임 추가 요청.
- 모두 동의함.
- 박규상 : 지역에서 여성주의 모임 구성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
- 안현진 : 우선 여성주의 모임을 홍보하며 함께할 주체를 찾아야 하는 문제이다. 지역 청학위와도 연계하여 여성주의 모임 구성에 대해 요청하겠다.

□ 사업계획

[서울 지역] : 기존의 20대 당원 모임 추진(성북, 동대문, 마포, 서대문 등) 및 가능 당협 추가 발굴(구로, 광진, 관악, 동작 등)

[서울 이외 지역] : 대구, 부산 청년학생위원회 활성화 / 광주, 경기도, 경북 등 집중 지역 선정 이후, 청년 당원 모임 추진

[각 시도당과의 연계] : 각 시도당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청년 당원 현황 파악 - 청

년 당원 모임 지원 요청

[서울청학위 건설] : 3월 ~ 7월까지 서울 각 당협 연계를 통한 월례 강연, 청년 당원 모임의 성과를 이어 8월 청년정치학교-청년학생위원회 총회에서 서울 청학위 건설을 완료한다.

□ 예산

: 운영비의 경우 시도당 / 당협과의 연계 속에서 지원을 요청한다.

### 3) 월례 기획 강연 추진

□ 목표

- : 최근 국제정치 최대의 화두인 유럽좌파의 선진과, 2014년 베스트셀러인 <21세기 자본>을 주제로 강연을 열어 이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다. 유럽좌파의 선진에 대해 함께 검토하며 한국의 좌파정당인 노동당이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든다.
- : 당원 확대 운동의 일환으로 당원 뿐 아니라 국제정치나 좌파적 대안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노동당을 알리는 기회로 만든다.

□ 사업계획

[현황]

- : 3월 서울 마포당협과 청년학생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시리자와 포테모스> 강연을 열 예정이고, 4월 이후에는 청년이 많은 당협을 연계하여 (ex) 서대문-마포 / 동대문-성북) 서울에서 2차례 이상 동일 주제로 강연을 열 예정이다.
- : 다양한 이유로 아래와 같은 동일한 주제로 모든 지역에서 강연을 개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주제와 연사 변동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할 예정임.

[3월] 시리자와 포테모스

: 지난 11월에 있었던 그리스 총선에서 급진좌파연합 시리자가 과반에 1석이 부족한 149석을 차지하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스페인의 포테모스는 창당 4개월만에 유럽의회 8석을 차지하고, 1년만에 지지율 1위 정당으로 올라섰다. 이들의 성공을 둘러싼 조건과 상황은 무엇이었고,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본다.

[4월]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 2014년 가장 뜨거웠던 책은 단연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다. 방대한 양의 통계를 기초로 해서 자본주의에 이미 내재해있는 불평등을 밝혔다고 평가받는 피케티의 자본. 같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책을 어떻게 바라보아야할까? 중위소득이

1100만원이라는 한국사회에서 피케티의 분석이 어떤 유의미성을 갖는지 알아본다.

[5월] 스위스 기본소득 운동

: 2013년 10월, 스위스에서는 ‘스위스의 모든 성인 국민에게 한 달에 2500스위스 프랑(약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2015년 올해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 위기를 극복하는 강력한 대안으로 손꼽히는 기본소득. 기본소득 운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듣는다.

[6월] 유럽 좌파정치인 초빙

: 구체적 초빙 인사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홍보]

- : 서울 전역에 대규모 홍보를 진행해 당원 뿐 아니라 국제정치나 좌파적 대안에 관심이 있는 모두에게 열린 강연으로 진행한다.
- : 각 당협의 20대 당원 모임과 연계하여, 대학가, 대안 공간을 비롯한 각종 지역에 인쇄된 포스터를 부착할 예정이다.

[서울 이외 지역]

- : 지역 청학위 혹은 시도당과 연계하여 지역에서도 유사한 형식의 강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기획, 홍보, 예산 지원 등을 중앙에서 함께 추진한다.
- : 가능한 지역부터 상반기 내 한 차례 정도의 집중 강연을 시도한다.

□ 예산

항목	단가	수량	총액	비고
연사료	150,000	6	900,000	4, 5, 6월 연사료(6회)
현수막	40,000	2	80,000	
포스터	A2 ~ A3 사이즈	2,000~ 3,000	700,000	3, 4, 5, 6월 각각 포스터 (매번 500장 이상 씩)
총액			1,680,000	

: 각 당협과의 연계를 통해 일정 예산은 공동으로 지출할 예정.

의견 제출
- 박규상 : “지역 청학위에도 필요할 시, 기획, 홍보, 예산 지원 등을 중앙에서 함께 추진한다”고 적혀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추진할 것인가? - 위원장 : 같은 주제일 경우 공통의 포스터를 통해 한번에 홍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강연자 섭외 등에 대해서도 중앙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재정 지원은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으나, 무지개기금 - 부문위원회 합동회의 등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확답하기 어렵다.

#### 4) 청년학생위원회 회원 확대 및 당원 확대 운동

##### □ 목표

- : 청년학생위원회의 활발한 사업을 통해 청년 당원에 대한 청년학생위원회 가입 운동 추진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청년학생위원회의 당내 청년 당원의 대표성을 제고한다.
- : 입당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이 성과를 서울 청학위 건설 및 당 활력 제고의 추진력으로 삼는다.
- : 무지개기금 납입자를 추가 조직하여, 부문위원회 재정 안정화에 기여 추진.

##### 의견 제출

- 정의용 : 당원 확대 운동을 위해, 월례강연 참가 이외에도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나?
- 위원장 : 당에서 나온 '노동당 스타터 가이드' 소책자와 같은 것을 조직화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함께 더 고민해야 한다.

### 3. 여름 집중 사업

#### 1) 청년정치학교

##### □ 목표

- : 작년 하반기 청년정치학교와 같이, 청년 당원들이 모여서 학습하고 토론할 수 있는 집중 사업을 8월 중하순에 조직한다.
- : 상반기 월례 강연 흐름의 연장선에서 청년 정치학교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좌파정당으로서 노동당의 진로와 전망 전반에 대해 청년 당원들이 주체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

##### □ 사업계획

- [3월] 중앙당과 청년정치학교에 관한 논의 진행
- [4월] 청년정치학교 기획단 구성 ~
- 이후, 기획단 주도하에 청년정치학교 준비.

[6월] 청년정치학교 홍보 시작

[8월] 본 행사 진행 (총회와 연동하여, 1박 2일 행사로 진행)

##### 의견 제출

- 안현진 : 청년학생위원회 회원이 가장 많이 모이는 청년정치학교, 총회 일정에 반성폭력 교육을 프로그램에 넣는 것이 필요하다.
- 위원장 :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청년정치학교 기획단에 참가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2) 총회

##### □ 목표

- : 상반기 조직 건설의 성과를 확인하는 총회 지점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 : 총선을 준비하는 시작점의 의미를 지니도록 총회를 구성하여, 총선 돌파를 위한 공동의 결의를 조직한다.

##### □ 사업계획

[5월] 총회 기획단 구성

[6월] 주요 안건 선정 및 간담회 개최 / 홍보 시작

[8월] 본 행사 진행 (청년정치학교와 연동하여, 1박 2일 행사로 진행)

항목	단가	수량	총액	비고
연사료	150,000	3	450,000	연사 3인 예상
현수막	40,000	2	80,000	
숙소	70~ 80명 예상		1,000,000	1박 2일 행사(청년정치학교 - 총회) 예정시 숙박 필요(대략적인 금액임)
총액			1,530,000	* 중앙당 청년정치학교 사업 예산이 제출되어 있기에 이와 연계하여 재정 지출이 필요함.

### 4. 하반기 사업

#### 1) 하반기 사업 개요

- 하반기 사업의 핵심은 상반기 서울 청학위 건설 완료 이후, 서울이외지역 청학위 활성화를 집중적으로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더불어 상반기 월례강연, 청년정치학

교, 총회를 거치며 형성된 공동의 경험과 공감을 토대로 2016년 총선을 대비한 청학원 차원의 정치 캠페인을 전국적 규모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상반기를 경과하며 건설될 각급 청년 당원 모임의 확대, 월례강연의 지속 또한 주요한 과제이다.

## 2) 각 급의 청년 당원 모임 조직 확대

□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각 급의 청년 당원 모임의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서울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기반으로 서울이외지역과 취약 분야 등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조직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 3) 정치 캠페인 진행

□ 2016년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기에, 청년학생위원회 차원의 정치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시도한다. 이를 통해, 특히 청년 세대에게 정치적 대안으로서 노동당이 지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반기 월례강연, 청년정치학교, 총회 등을 거치며 형성된 공감대를 기반으로 공동의 정치 캠페인을 힘있게 시작할 예정이다.

## 4) 2016년 총선 청년 후보단 발굴

□ 총선을 대비하여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청년 당원을 발굴하기 위한 계획을 여름 집중 일정인, 총회에서 수립할 예정이다.  
□ 총선을 준비하는 청년 당원 개인에게 정책, 조직, 재정적 모든 부담을 넘기지 않는 방식으로 청년학생위원회가 함께 준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5. 기타 사업

## 1) 저항하는 청년들의 네트워크 조직

□ 당의 강령과 지향에 따라 활동하다 감옥에 가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청년 당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청년학생위원회가 자임하고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병역거부로 수감되어 있거나, 병역거부를 준비하는 회원이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과업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법률적 지원 등을 청학위가 단독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 안팎의 다양한 기구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 사업계획

[3월] 당 안팎으로 지원 방법 모색

[4월] ‘저항하는 청년 당원’ 찾기

[5월] ~ 집행위원회 중심으로 지원 사업 진행

## 2) 연대 활동 강화

□ 당 청년학생위원회 차원의 연대 활동이 부족했다는 비판에 따라 청년학생위원회 차원의 연대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 청년 당원들이 주요하게 연대하고 있거나 매 시기 정세적으로 중요한 투쟁에 대해서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각 시기별로 주요 투쟁 현안을 확정하여 집중 연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 논의 결과

- 여성주의 모임의 경우 보완 사항으로 추가 했으며, 이외에는 원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의결함.
- 3월 10일 중앙집행위원회/3월 21일 전국위원회에 ‘연간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수정사항에 대해 전국운영위원회 내부 검토를 거친 이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의결함.



## 논의안건3 토크콘서트 <사람들> 공동 주최의 건

주문 사항

다음의 사항을 의결해 주십시오.

### 토크콘서트 <사람들> 공동주최 제안서

— “투쟁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 —

수신: 노동당 청년학생위원회

발신: <사람들> 기획단

0.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이르러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투쟁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과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는 기획단입니다. 토크콘서트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이 사회에 던지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 지난 2014년 그리고 2015년 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 긴 시간동안 싸워서 겨우 진상조사위 세우는 것에 성공하였으나, 현재 그 진상조사위는 전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세월호에 대한 재판들은 2심으로 넘어가면서 점차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2014년 말부터 이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 분들이 점차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정부에서는 이를 철저한 탄압으로만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청소, 경비 노동자들은 목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투명인간처럼 보이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밀양에서는 주민 분들이 송전탑, 핵발전소를 막기 위한 투쟁을 10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져 가고만 있습니다. 이렇듯 2014년, 2015년 대한민국에는 수없이 많은 “투쟁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3. 이에 저희는 “투쟁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투쟁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힘들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러한 사회를 바꾸기 위한 움직임을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4. 이 토크콘서트의 공동주최와 기획단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월 4일 사람들 토크콘서트 기획과 집행을 함께 책임지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80일 넘게 굴뚝위에서 싸우고 있는 쌍용자동차 김득중 지부장님과 전광판 위에 올라가 있는 LG-SK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시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송전탑 반대 싸움을 진행하고 계시는 밀양의 주민분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고 평범한 삶에서 투사가 되어야 했던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시고 나는 왜 싸우게 되었는지, 잊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5. 4월 4일 당일 토크콘서트 뿐 만 아니라 <사람들>을 지지하는 <함께하는 사람들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한달여동안 활동하는 계획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6. 아래에 기획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읽어보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김재섭(010-9355-3697)으로 문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첫 모임은 3월 13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 ▶ 공동주최와 기획단 참여를 제안합니다. 공동주최 분담금은 10만원입니다. 기획단은 <사람들> 홍보와 집행을 공동 책임지며, 서포터즈 운영 또한 책임집니다.
- ▶ 지금까지 공동주최 확정 단체 : 4.16 가족 협의회, 4.16국민연대(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더불어민주당희망연대노동조합 LGU+ 비정규직지부•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 청년좌파,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학생회,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 ▶ 후원 단체 또한 추가적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 토크콘서트 <사람들> 기획안

#### ▶ 시간

— 2015년 4월 4일 토요일

— 오후 7:00~9:00 ( 부스는 6:00부터 운영, 입장 6:30부터 )

#### ▶ 장소

— 공연장비가 갖추어진 공연장(서울)

#### ▶ 프로그램

— 영상 : 서포터즈 활동으로 제작

— 토크콘서트

— 공연

— 현장 부스

#### ▶ 공연자

— 전상규(와이낫 보컬) , 윤영배, 스카웨이커즈 등

#### ▶ 토크콘서트

#### 1부

— 쌍용자동차노동자, LG-SK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등

— 대한민국 사회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 2부

— 세월호 유가족, 밀양

— 평범한 사람이었던 내가 왜,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잊혀져서는 안될 사람들의 이야기

#### ▶ 행사 흐름

3:00~4:00 까지 무대 장비 설치, 영상 확인

4:00~5:30 까지 공연 리허설.

시간	소요시간	내용	비고
5:30	30분	입장 시작 및 안내	
6:00	10분	오프닝 영상 및 사회자 등장	
6:10	30분	공연팀1	(윤영배)
6:40	30분	토크콘서트 1부	SKLG노동자 + 쌍용차 해고자
7:20	30분	공연팀2	(스카웨이커스)
7:50	30분	토크콘서트 2부	밀양 주민 + 세월호 유가족
8:20	30분	공연팀3	(전상규)
8:50	10분	마지막 영상, 끝	
9:00	~	정리	

- 공연팀은 5분 공연, 10분 토크, 15분 공연을 기본으로 한다. 사회자 혹은 토크콘서트 패널의 소개로 등장하여 한국 연주 후, 사회자와 함께 10분의 토크를 진행하고, 이후 공연을 이어간다

#### ▶ 현장 부스

- 당일 오후 5시부터 부스 운영 시작.

#### 1. 각종 단체 부스

#### 2. 서포터즈 활동 결과물 전시

#### 3. 세월호 & 밀양 & 오체투지 사진전

#### ▶ 서포터즈 운영 계획

- 모집대상 :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 세월호를 기억하고자 하는 사람, 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

- 모집기간 : 2015년 3월 2일(월) ~ 3월 14일(토)

- 모집인원 : 100명 내외

- 활동방안 (기획팀과 언론홍보팀 운영)

- 활동기간 : 2015년 3월 ~ 4월 4일까지 (약 3주간)

- 활동내용 : 1.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 개최

- 2. 콘서트 홍보(온라인, 오프라인)

- 3. 출연자 인터뷰와 취재글쓰기, 지지방문

- 4. 관련 콘텐츠(지지영상, 홍보영상, 팸북 밀어보기 등) 생산

#### ▶ 예산 (가안)

수입		
항목	금액	비고
입장권	750만원	300명 * 2만 5천원

후원 / 분담금	300만원	
합계	1050만원	

지출		
항목	금액	비고
대관료	250만원	
조명	100만원	조명기사 비용
음향+악기	150만원	
플랑	50만원	
포스터	40만원	2천부 기준
리플렛	30만원	2만부 기준
섭외비	150만원	50 * 3팀
섭외비	80만원	20 * 4명
서포터즈 운영비	70만원	
합계	920만원	

콘서트의 모든 수익은 <4.16 가족협의회>에 후원합니다.

#### 논의 결과

- 정의용 : 공동주최시 분담금 10만원은 어떻게 충당할 수 있나?
- 위원장 : 부문위원회 합동회의 - 무지개기금에 제안하여 통과된다면 분담금을 충당할 수 있다.

- 정의용 :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 위원장 : 최대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기획단에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겠다.

- 안현진 : 공동주최 이외에 추가로 당 청학위가 드러날 수 있는 활동을 어떻게 전개할 수 있겠나?

- 위원장 : 본 행사에 부스 설치 등을 추진하고, 서포터즈 운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며 조직화 성과를 낼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 박규상 : 기획단으로 참가할 경우, 청학위 차원의 집행-실무 등은 어디에서 책임지는 것인가?

- 위원장 : 위원장과 집행위원회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박규상 : 지역도 홍보, 참가 독려 등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가?
- 위원장 : 청학위에서 공동주최하는 사업이 된다면, 지역에도 홍보와 참가 독려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역 청학위와 개별 회원들에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 위와 같은 의견이 오고갔으며, 이후 공동주최 참가 결정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함. 공동주최 분담금 1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부문위 합동회의에서 요청하고, 기획단 참가 등은 위원장과 집행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함.

## 기타안건

## 기타안건

## 공지사항

## 차기회의

- 5월 중하순 중 2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최 결정.